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르 1,16-18)



〈제베대오의 아들들을 부르심〉, 마르코 바사이티, 1510년, 아카데미아 갤러리, 이탈리아 베네치아

[제1독서]..... 요나 3,1-5.10

[화답송] 시편 25(24),4-5 가. 6과 7 나. 8-9
(◎ 4가)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1코린 7,29-31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14-20

[성가 안내]

- 입당성가: [6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188] 천사의 양식
- 파견성가: [6] 찬미노래 부르며

묵상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6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8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19 예수님께서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After John had been arrested,
Jesus came to Galilee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This is the time of fulfillm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As he passed by the Sea of Galilee,
he saw Simon and his brother Andrew casting their nets into the sea;
they were fishermen.
Jesus said to them,
“Come after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Then they abandoned their nets and followed him.
He walked along a little farther
and saw James, the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hey too were in a boat mending their nets.
Then he called them.
So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along with the hired men and followed him.

살면서 ‘때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코헬렛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니네베의 악행을 심판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셨을 때,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망을 칩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네베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의 달갑지 않았던 회개 선포에 곧바로 단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표지로 자루옷을 입은 니네베 사람들의 모습은 ‘다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잡힌 뒤에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때가 되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마음속 깊이 그들이 찾던 인생의 해답을 그 부르심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세속의 행복만을 찾는 사람에게 결코 다가오지 않는 때입니다.

냉담 중인 부모나 자녀들, 세례는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대자 대녀들, 본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지만 눈에 거슬리는 동료 신자들,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내게 상처를 준 본당의 사제나 수도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내 맘에 들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인정해 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조금하고 이기적인 때와는 다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흘러 지나가는 시간의 때가 아니라, 당신의 충만함을 보여 주시는 때를 선물하십니다. 물론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믿고 맡기고 사랑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 나를 살게 하는 한 마디 ”



찬미예수님!
사랑합니다!

방명준 라우렌시오 보좌 신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한 계획들을 차곡차곡 실천해 나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지난 해에 후회했던 일들을 반복하는, 그래서 조금은 아프고 힘든 ‘무너짐’의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들이 걸어온 발자국은 왜 이리도 삐뚤삐뚤하게 느껴지는지요! 하지만 어느 저자가 쓴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라는 책의 제목처럼, 그 삐뚤삐뚤한 발자국 안에도 하느님의 배려가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 또한 은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그동안 걸어온 삐뚤삐뚤한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들이 걸어갈 발자국 안에 담길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하고,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볼 때, 아주 예쁘고 화려한 꽃도, 흔들리지 않고 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와도, 또 우리들의 삶에 ‘흔들림’이 있어도, 모두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점집’으로 향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지요.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향합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점집’으로 가도, ‘술집’으로 가도, 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도, ‘위기’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공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제게도 사제가 되기 위한 여정 위에서 적지 않은 ‘위기’들이 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성소자가 줄어들고 있는 요즘, 저희 반은 50명이 정원인 신학교에서 50명이 입학한 첫 반이자, 마지막 반이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49명이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입생들은 입학 전에, 약 1주일간의 적응 기간을 먼저 갖습니다. 그런데 그 적응 기간 중에 한 형제가 그만둔 것입니다. 친해지기도 전에 너무 빨리 일어난 일이라, 저희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길을 달리하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힘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흔들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만 사는 줄 알았던 신학교에서, 그렇지 않은 형제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또 그런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면서, 고민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학교에서 가장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제 자신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짐을 꾸릴 때가 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신학교에서 맞는 첫 성주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수난 성지주일로 기억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성지가지를 흔드는 그 순간에도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행렬이 끝나고, 성당에서 계속해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난기가 봉독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수난복음의 한 부분이 자꾸만 제 마음을 건드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주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다고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루카 22,59-62)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그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혹시 나도 주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 실상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며, 그분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물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밖으로 나가면 저도 슬피 울 것만 같았습니다.

이처럼 저를 뒤흔드는 ‘위기’ 앞에서, 저를 붙잡아준 것은 다름 아닌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년마다 저를 살게 하는 한 마디를 정하고, 그 한 마디를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코린토1서 3장 6절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제가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함’을 청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한 마디를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한 마디가 ‘점집’에서도, ‘술집’에서도, 그리고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아멘.

1월 소공동체 모임

지난 1월 13일(토)에 소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요한 복음(1,35-42)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사랑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스프링필드 구역

봉사자 박 카타리나 자매댁에서 약 20여 명이 모여 복음 말씀 “와서 보아라”는 주제를 묵상하며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역 봉사자 이순용 바오로 형제가 준비한 상품을 놓고 즐거운 율놀이를 하며 활기차고 훈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버크 구역 1반

김윤옥(헬렌) 자매댁에서 7가정 14명이 참석하여 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에서 “와서 보아라”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새해를 맞아 신앙인으로서 각자 다짐한 것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빌 구역 1반

박종찬 베드로 · 박양희 레지나 부부댁에서 20가정 31명의 구역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와서 보아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새해를 맞아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날 모임에는 김성호 미카엘 · 엘리자벳을 포함하여 처음 참석한 신자들을 환영하고, 복음 나누기 후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빌 구역 2반

이성열 어거스틴 · 쏘니아 부부댁에서 11가정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을 묵상하며 새해를 맞아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버크 구역 3반

서승렬 마로 · 마리아댁에서 10가정 13명이 참석하여 묵기도 5단을 드리고 복음 묵상과 말씀 나누기를 한 후, 떡국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링턴교구 WorkCamp, 2018년 6월 23일-6월 29일



알링턴교구 청소년국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워크캠프는 교구 소속 60개 이상 성당에서 참여하는 교구 최대 규모의 캠프입니다.

9-12학년 800명의 학생들과 어른리더, 컨트랙터, 안전요원 봉사자 그리고 대학생 봉사자 700명을 포함, 총 1500명이 함께하는 캠프로 올 해도 Fredericksburg 에 있는 Massaponax 고등학교에 캠프 베이스를 만들고 6박 7일간의 봉사활동을 준비합니다. 워크캠프는 학생들과 리더, 컨트랙터가 한 팀을 이루어 5일 동안 창문과 지붕 교체, 벽 보수 공사, 마루갈기 등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집 150채를 고쳐 줄 계획입니다. 하루 일과는 매일 아침 7시 미사로 시작하며 참가자들은 서로 단결해서 일하는 가운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나갑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교구에서 준비한 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시간을 통해 찬양과 신앙체험담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작년에는 본당에서 29명의 학생들과 12명의 어른 봉사자들이 참가해 보람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올 해도 많은 학생들과 봉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WorkCamp 2018

June 23 - June 29, 2018



Arlington Diocesan WorkCamp is an intentional Christian Community that provides an experience of direct service for young people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In WorkCamp 2017, 820 teens from 38 parishes in the northern half of Virginia gathered at Massaponax High School for a week (June 24 to June 30) to make needed repairs and additions to 110 homes in the greater Fredericksburg area.



WorkCamp 2017

WorkCamp's five-teen crews installed wheelchair ramps, replaced old windows, leaking roofs, built second decks onto trailers and replaced aging plumbing for residents who cannot afford to make these repairs themselves.



Throughout the week, the students were encouraged to get to know the residents by bringing lunch for the families every day

and eat with them.

“Kids come to work camp thinking, ‘I’m here to help people,’ but the goal is really to flip that,” Bohli (WorkCamp Director) said. “We want them to be changed by their experience meeting these families. We’re indebted to the residents for their generosity in letting these young people come into their lives.”

It was WorkCamp's 29th year sponsored by the Diocese of Arlington's Office of Youth Ministry and teenagers got together to serv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hile building strong, long lasting relationships with their friends and youth leaders.

In six short days, hundreds of teenagers from youth groups across the county repaired and transformed homes while growing closer to Jesus.

“These teens inspire us to love, to serve our neighbor - especially those in need

- Bishop Michael F. Burbidge -

ANNOUNCEMENT

1. CYO Ski Trip

- **When** : Jan.26(Fri)-Jan.28(Sun)
- **Where** : Seven Springs Resort, PA
- **Cost** : \$200 (with your own ski equipment)
\$260 (ski rental fee included)
- **Contact** : Mr. Rhee(Augustine) 703-627-0799

2. WorkCamp 2018

- **When** : Jun.23(Sat)-Jun. 29(Fri)
- **Who** : 9th to 12th grades
- **Cost** : \$475
- **Registration** :
For a month starting Jan. 21 (parish hall)
- **Contact** : Mr. Rhee(Augustine) 703-627-0799

단체장 회의



2018년도 첫 단체장 회의가 지난 14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구 단체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봉사해 준 전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새 임원진에게도 일년 동안 잘 부탁드린다”며 “기꺼이 봉사하기로 결심한 마음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각 단체는 28일(일) ‘단체 홍보의 날’을 앞두고 신입 회원 모집 및 홍보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

꼬미시움 월례회의



레지오 마리아의 꼬미시움 (단장 김국 스테파노) 2018년 첫 월례회의가 1월 14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40 명의 꼬미시움 및 꾸리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적지도신부인 백인현 주임신부는 “오늘 제1독서 말씀에서 사무엘이 주님께 순명하듯, 본당 사도직 단체의 대표인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새해에도 본당 봉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사업 보고 및 공지 사항 전달이 있었다.

2018 가두선교 시작



증거자의 모후 브레시디움



주님의 종 마리아 브레시디움

바오로회 공지

이상적인 본당 공동체의 모습을 적어주세요!

성당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이야기보다는 신앙적인/종교적인 이야기, 아이들 사교육부다는 아이들 성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기도해 달라고 부담없이 말할 수 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뭇지 주님 안에서 함께 한다는걸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같이 친해질 수 있는 따뜻한 모임)

종교/신앙 생활은 내 삶이 지치고 시련에 빠져 있을 때만 찾는 곳이 아니라, 숨쉬듯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상적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을 위한 짧은 기도 혹은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형제님 자매님이 아닌 정점으로 형제에 자매애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기적이 성당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즐을 할 때 완성된 그림이 있어야 맞추기가 수월하듯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자주 이야기하면 의미있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바오로회 기획부원들과 소그룹 리더들이 여러분이 적어 주신 글을 성당 식구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오로회가 성당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두선교 단원 화이팅!

2018년 새해를 맞아 레지오 단원들의 가두선교가 다시 시작되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도 무색할 만큼 가두선교에 나선 단원들의 열정은 뜨거웠다. 1월 10일(수) 주님의 종 마리아 브레시디움 (단장 박혜정 율리아) 단원 세 명을 시작으로, 1월 14일(일) 증거자의 모후 브레시디움 (단장 민인숙 테레사) 단원 네 명이 센터빌 H 마트 앞에서 가두선교에 임했다.

매주 레지오 단원들의 가두선교가 이어질 예정이다.

1 사도임원 및 본당 봉사자 피정

- 일시 : 1월 21일(일) 오후 1시- 4시까지
- 장소 : 본당
- 문의 : 하진 세바스찬 (703)376-1372
- 대상 : 사도임원(부장/차장), 구역부 봉사자, 각 단체부장, 청소년 부서 봉사자

2 하상회 정기모임

- 일시 : 1월 21일(일) 오전 11:30(B-1,2)

3 안나회 정기모임

- 일시 : 1월 21일(일) 오전 11:30(A-1,2,3,4)

4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1월 21일(일) 오전 11:40(하상관 B-4,5)

5 베드로회 정기모임

- 일시 : 1월 21일(일) 오후 1시(B-1,2)

6 주일학교 임원회의

- 일시 : 1월 21일(일) 오후 1시(교무실)

7 1월 정기 울뜨레아

- 일시 : 1월 26일(금) 저녁 미사 후 (친교실, A-1,2)
-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8 단체 홍보의 날

- 일시 : 1월 28일(일) 8시, 10시 미사 후
- 단체들을 소개하는 자리에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9 복사단 모임

- 일시 : 1월 28일(일) 오후 12:40(B-1,2)

10 K of C 정기모임

- 일시 : 1월 28일(일) 오전 11:30(B-1,2)

11 교육부 세미나

- 주제 : 텃밭 가꾸기 - 명품 고추씨앗 파종 실습 및 씨앗 무상 제공
- 강사 : 원응식 요셉(농학박사)
- 일시 : 1월 28일(일) 오전 11:30(친교실 A-1,2)
- 문의 : 김우기 안드레아 (703)395-1305

12 CYO 스키 트립

- 일시 : 1월 26일(금) - 1월 28일(일)
- 장소 : Seven Springs Ski Resort, PA
- 접수 : 선착순 30명 (하상관 로비, 8시 미사 후, 10시 미사 전/후)
- 등록비 : \$200(본인 장비 지참시), \$260(장비 대여료 포함)
- 문의 :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13 2018 Work Camp

- 일정 : 2018년 6월 23일(토) - 6월 29일(금)
- 대상 : 9학년 - 12학년
- 참가비 : \$475(등록비 선납)
- 신청 : 1월 21일(일)부터 1달간, 친교실
- 문의 :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14 성경통독 참석자 모집

- 본당 설정 25주년(2021)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성경(구약과 신약)을 통독하는 모임에 참석자를 모집합니다.
- 문의 : 하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장문환 베네딕도 (540)247-3734

15 세계 결혼 기념일 혼인 갱신식

- 세계 결혼 기념일을 맞아 결혼 25주년, 50주년, 60주년을 맞는 부부들을 혼인 갱신식에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2월 11일(일) 10시 미사 중 10시 미사 후 파티 (A-1,2)
- 신청 및 문의 : 김 레지나 (703)477-2446

16 Lightworks - 이나시오식 영성 프로그램

-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서를 통해 예수님과 더욱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기도 - 14주 프로그램(알링턴 교구 주교님 권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관 : 알링턴 교구 다민족 문화 사무부
- 일시 : 2월 13일(화) 오후 8시(미사 후) 하상관 #4
- 신청 : 2월 4일까지(친교실, 10시 미사 후)
- 문의 : 심 안젤라 (703)725-6453

17 2018년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성지순례

- 주님과 성모님 그리고 성인, 성녀와 함께 하는 순례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8년 9월 16일 - 9월 26일(10박 11일)
- 비용 : \$3,100 (Deposit \$1,000)
- 문의 : 안 수산나 (571)423-8757, 김 데레사 (703)403-1179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월 21일(일)	연중 제3주일	안나회(오전 11:30, A-1,2,3,4), 하상회(오전 11:30, B-3,4), 꾸리아(오전 11:40, 하상관 #4,5), 베드로회(오후 1시, B-1,2)
1월 22일(월)	연중 제3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23일(화)	연중 제3주간	성령기도회(오후 8시),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24일(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통독반(오후 8시, A-1)
25일(목)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재정위원회(오후 8시, 회의실)
26일(금)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바오로 자매 모임, 꾸르실로 회합(오후 8시, A-1,2)
27일(토)	연중 제3주간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1월 28일(일)	연중 제4주일	미사 독서/해설자 모임(오전 9시), K of C 모임(오전 11:30, A-1,2), 복사단 모임(오후 12:40, B-1,2), 성서통독반

연령회 공지사항

- 각 개인이나 구역에서 보관하고 있는 연도책을 상당 사무실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책마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성인 호칭 부분을 통일하려 하니 **1월 31일까지** 반납해 주십시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연중 제3주간 : 판권 8-14, 루카 11

KACM TV 하이라이트

- 1월 25일(목) 오후 5:00-6:00
- 1월 26일(금) 오후 8:00-9:00
- 1월 28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종합 뉴스
- 특집 중계 : 새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 해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위원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 바뀐 이유와 내용 등을 자세히 해설해 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월 14일(연중 제2주일)

주일헌금	\$ 7,724.00
교무금	\$ 7,96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1,905.00
특별헌금	\$ 130.00
2차헌금	\$ 0.00
합계	\$ 17,724.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영(시몬),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김영식(베드로), 양소저(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나시오), 안순경(모니카), 이수선,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최재근(시몬), 권 미카엘, 김 루시아, 백명수(마리아), 고필선 켈마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지노), 이של(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 기도해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립(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현)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디케어 홍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양 요 한 동양화 표구 전문 703-628-0114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Kim Chiropractic & Reha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703-815-2300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교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	---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